

달서구문화원

제25회 전국문화사진공모전 시상식 및 전시회

달서구문화원은 지난 12일(월) 달서갤러리에서 '제25회 전국 문화 사진공모전 시상식' 및 '제18회 전국 문화 사진 초대작가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달서구문화원이 주최한 '전국 문화 사진공모전'은 이태훈 달서구청장과 조현정 달서구문화원 원장, 참여 작가와 가족 등 많은 사진 애호가들의 관심 속에서 진행됐다.

이해순 초대작가회 회장 직무대행은 "제18회 정기전의 색선별 내용은 우리의 삶터, 인간과 자연 그리고 도시가 어우러진 거리를 위해서라는 큰 명제 아래 전국에서 활동하는 회원 60명이 출품해 정기전을 개최하게 됐다."며, "사진이 다른 매체와 차별화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은 기록성이다. 주변의 일상사들을 소박하게 촬영해 시대의 기록이 되고, 먼 후일 역사가 될 수 있는 소중한 다큐멘터 작업으로 성화시키는 것이 사진의 특성을 잘 살리는 것이 될 것이다. 스스로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며 작품 활동하기를 기원한다. 작품을 출품해 준 회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전국 문화 사진공모전은 달서구의 역사적, 문화적 산물과 발전상을 사진으로 기록한 작품과 자유출품작을 주제로 729점이 접수되어 공정한 심사를 통해 입선 44작품, 특선 15작품, 가작 4작품이 입상했으며, 박은경 작가, 박정희 작가, 김정민 작가가 동상을, 하승철 작가, 임지향 작가가 은상을, 배만경 작가가 '죽음의 골짜기'로 금상을, 이정화 작가가 '어머니의 초상'이란 작품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이정화(제주) 대상 수상자는 "사진

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처음에는 출품만 하자라는 생각으로 사진 공모전을 하게 됐다. 큰 상을 준 심사위원분들과 달서구문화원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사진에 입문하게끔 만들어준 친언니와 공모전하면서 사진을 처음 시작하게 된 친구에게도 고마움을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다.

배만경(감삼동) 금상 수상자는 "평소에 사진 찍기를 너무 좋아해 취미로 여행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었다. 작품 사진이라기보다는 인증샷을 주로 찍었는데 이런 좋은 작품을 만나게 돼 이번에 출품하게 됐다. 다행히

큰 상을 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번 입상작은 지난 17일(토)까지 달서아트센터 달서갤러리에서 전시했다. 한편 달서구문화원 조현정 원장은 "올해부터 파일 접수 전환으로 인한 참가율 상승으로 전국문화사진 공모전이 더욱 풍성하고 성공적으로 만들어주신 전국의 참여자들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문화 예술의 소통, 참여, 교육, 전시 등 축제의 마당을 마련하고 문화 계승과 진흥을 위해 더욱 매진하며 훌륭한 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객원기자



대구강서소방서 의용소방대 '신규대원' 임명장 수여식

대구강서소방서는 지난 8일(목) 본서 3층 소회의실에서 의용소방대 신규대원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신규 임용된 의용소방대원은 6명(남 2, 여 4)으로, 앞으로 각종 재난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을 보조하고 각종 캠페인 등의 화재예방 활동에도 앞장서게 된다. <자료제공:대구강서소방서>

2021 이용자만족도 푸른방송 전국1위

푸른방송과 푸른신문이 지역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달서구 달성군의 **중소상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기획기사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기획기사를 통해 가계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민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가 필요하신 분은 푸른방송 551-2000, 푸른신문 572-6000로 연락 주십시오.

- * 1.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푸른신문에 제보해 주신 기사가 게재되신 분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 * 2. 사랑하는 사람, 보고싶은 사람, 고마운 분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세요.
사연과 관련 사진 동영상 등을 푸른방송 제작팀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이메일 gcsup@gcs.co.kr)

푸른방송
홈페이지 QR코드



푸른신문
홈페이지 QR코드

